

과학자의 사랑 4

최후의 마법사, 아이작 뉴턴

글_윤지강·소설가

주몽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 알로 태어났다. 금와왕은 알을 불길하게 생각해 내다버렸지만 돼지들은 알을 먹지 않았고 소와 말도 비켜갔으며 새들은 큰 날개로 덮어주었다. 이에 알을 덮어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주몽설화다.



이만의 그림 「주몽의 하늘」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태어나는 아들의 이야기는 영웅탄생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태어난 영웅은 기왕의 세계를 전복시키면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낸다.

영웅이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태어난다는 점에서 뉴턴의 탄생과정은 신화 속 영웅의 탄생과 매우 흡사하다. 뉴턴이 그 이름을 물려받은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병약한 탓에 결혼식을 치르고 다섯 달 만에 죽었다. 그의 아내 한

나는 석 달 후에 사내아이를 낳았지만 체중이 한참이나 부족한 미숙아였다. 임신 중 남편과의 사별을 겪은 충격으로 태아가 제대로 발육하지 못한 탓이다. 아기가 얼마나 작았는지 1쿼터짜리 주전자에 들어갈 정도로 작았고 아기를 받은 조산원은 아기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다. 후일 자신의 전기작가인 존 콘듀이트에게 뉴턴이 들려준 얘기다.

미숙아로 태어난 뉴턴은 한참 자라서도 병약했고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고 허약했다. 하지만 뉴턴의 생애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세 살 때 어머니 한나가 이웃 마을의 늙은 목사와 재혼해 곁을 떠난 것이다. 바로 전 해에 부인과 사별한 예순셋의 목사는 어린 아들에게 땅 한 필지를 물려달라는 젊은 아내의 결혼조건을 수락했지만 세 살배기 사내아이를 데려가 양육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불쌍한 소년은 다시 어머니에게도 버려져 울스소프의 농가에 남겨졌고 조부모 밑에서 외롭고 우울한 유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밤마다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를 들려주고 불에다 굶나잇 키스를 해주던 엄마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세 살배기(우리나라 나이로는 다섯 살이다) 아이에게는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불가항력의 폭력이었을 것이다. 이때의 깊은 상처는 평생 뉴턴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집요하게 그를 괴

롭히며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했다.

뉴턴은 20세 되던 해에 그때까지 자신이 지은 죄의 목록을 일기에 고백 했는데 그 중 대단히 서늘한 내용이 들어있다.

“새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가 그들과 그들이 사는 집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한 일.”

“누군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일.”

아홉 살 때의 이 일을 스무 살이 되어서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털어놓은 것을 보면 어머니를 빼앗긴 소년의 슬픔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알 수 있다. 아마도 뉴턴은 아홉 살 무렵에야 집안의 누군가로부터 한나가 울스소프에서 겨우 2~3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던 듯하다. 하지만 벽찬 기대감을 안고 찾아간 엄마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판이했다. 밤마다 베갯잇을 적시며 울고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그리운 엄마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토록 젊은 엄마는 자신보다 무려 30년이나 나이 차가 나는 늙은 목사와 살고 있고 아이까지 임신한 배불뚝이의 모습이였다. 극도의 상실감과 분노, 혐오로 뒤범벅되어 울스소프로 돌아오는 내내 어린 소년은 미칠 듯 울었으리라. 그리고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리쳐 그들과 그들의 집이 지옥의 불길 속에서 훨훨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조지 루카스의 걸작 SF영화 <스타워즈>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대사는 “I’m your father!”다. 루카스가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의 명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아버지 탐색은 영웅의 한 여정이며 인류의 진화를 의미한다. 그토록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찾아 헤맸던 루크 스카이워커는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다스 베이더를 죽여야 인류를 어둠의 세력에서 구할 수 있다.

영웅의 아버지 살해는 곧 전대(前代)에의 극복이다.

아버지란 나의 뿌리인 동시에 나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기 때문이다.

사실 뉴턴이 극복해야 할 존재는 새아버지가 아니라 기존의 낡은 사상이었다.

뉴턴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했던 중세의 역학과 우주론에서는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



살바도르 달리의
브론즈 「뉴턴에게
경의를 표함」

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땅의 세계는 불완전한 인간의 세계고 하늘의 세계는 완전한 신의 세계였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신비의 세계인 하늘이 뉴턴을 통해 드디어 인간에게 열린 것이다.

17세기의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창세기의 구절을 따 뉴턴의 업적을 이렇게 노래했다.

“신께서 뉴턴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때에야 세상이 밝아졌다.”

우주에 대한 뉴턴의 새로운 이해는 과학만이 아닌 18세기 유럽사상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해 인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적인 세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뉴턴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다줌으로써 인류에게 문명을 가져다 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영웅이다.

하지만 이토록 위대한 천재성 이면에는 괴물로까지 불릴 만큼 뉴턴은 매우 복잡한 내면을 지닌 인물이었다. 표면적으로 그는 온화하고 조용한 신사였지만 자신의 연구와 반대되는 경쟁자들에 대해서만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복수했다. 가장 유명한 싸움은 독일의 철학자 겸 수학자인 라이프니츠와의 ‘미적분 우선권 논쟁’이다. 수학 역사상 제일 큰 이 논쟁은 1716년 라이프니츠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끝이 날 정도로 치열했다. 그 다음이 ‘흑의 법칙’으로 유명한 로버트 훅과의 ‘케플러의 제 1법칙’으로 인한 긴 소모전이다. 뉴턴은 훅이 빛의 성질에 관한 자신의 초기 논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해 왕립협회장이 되었을 때 훅의 업적을 철저히 말살했다. 뉴턴과 다툼을 벌인 과학자는 이외에도 왕실 천문학자였던 존 플램스티드와 전기 통신자이며 아마추어 과학자인 그레이이다. 이들은 모두 뉴턴의 독선과 아집에 희생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다.

심리학자들은 뉴턴의 이러한 편집증적인 성격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랑의 결핍이 이 위대한 과학자를 때론 괴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뉴턴의 성장과정을 보면 친

밀한 스킨십을 나눌만한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 역할을 하는 외할머니가 있었지만 ‘생각의 샘’이라 불리는 그의 일기에 외할머니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는 것과 또 외할아버지가 유언장에서 뉴턴을 배제한 것을 보면 그와 조부모 사이에는 어떤 끈끈한 애정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653년 뉴턴이 열한 살이 되었을 때 스미스 목사가 죽어 한나는 울스소프로 돌아왔다. 한나의 친정은 부유했고 뉴턴의 집도 가난하지는 않았으나 스미스 목사가 물려준 유산으로 한나는 부유한 과부가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린 「뉴턴」. 뉴턴이 신의 모습으로 지구를 측량하고 있다.

되었다. 하지만 한나는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올망졸망한 이복동생들 셋을 데리고 왔다. 한명은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고 또 한 명 역시 겨우 두 살이었다. 당연히 한나의 관심은 어린 동생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지만 뒤늦게라도 사랑을 보상받고 싶었던 소년은 다시금 깊이 상처를

맞보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소년은 더욱더 깊이 자기만의 세계로 숨어버렸고 괴팍한 천재가 되어갔다.

연애에서만 빼놓고 소년은 한번 무엇인가 몰두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다. 그의 별명이 메모광, 독서광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의 이러한 광적인 몰두는 불안정한 자신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이었으리라. 버림받았다는 지독한 슬픔과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고독감을 잊는데 몰두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공부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연구에 몰입하면 뉴턴은 식사도 선 채로 한두 술 먹다말고 새벽 2시나 3시 이전에는 잠드는 법이 없었다. 잠도 옷을 입은 채로 아무렇게나 구겨 잤고 새벽 5시나 6시면 일어나 다시 책상으로 갔다. 머리카락은 항상 헝클어진 상태였고 구두는 발 뒤꿈치가 구겨져 있었으며 아주 가끔 연구실에서 나와 학교 식당으로 향하다가도 과학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면 샛길로 빠져 쫄쫄 굶고 돌아오기도 했다.

이런 남자와 사랑할 여자가 세상에 있을까.

어쩌면 그가 10대 시절을 보낸 하숙집의 수양딸 캐서린 스토러라면 이러한 뉴턴을 받아들였을 지도 모른다. 캐서린은 뉴턴이 어린 시절 몇 년 동안 한 지붕 밑에서 사춘기를 함께 보낸 소꿉친구나 다름없다. 그녀는 뉴턴을 좋아했고 결혼까지 꿈꾸며 청혼을 기대했지만 대학에 입학한 뉴턴이 끝내 중무소식이자 변호사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하고 말았다. 캐서린이 뉴턴을 기다리지 않고 결혼한 것은 어쩌면 그녀의 일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캠브리지 대학 시절 뉴턴의 노트에는 캐서린의 이름은 단 한 줄도 보이지 않고 다른 이름들만 죽 나열되어 있으니까.

“플라톤은 나의 친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의 친구다. 그러나 진리야말로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의 친구다.”

아마도 뉴턴은 율스소프의 자기 방 책장에 꽂힌 오비디우스를 읽지 않았거나 읽었더라도 연구에 미쳐 까마득히 잊어버린 듯싶다. 오비디우스는 인류탄생의 대서사시 『변신이야기』로 당대의 인기를 한 몸에 누린 시인이지만 연애지침서인 『사랑의 기술』을 써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책이 금서로 정해지고 흑해 연안으로 추방되어 죽을 때까지 로마로 돌아오지 못했다.

오비디우스는 『사랑의 기술』에서 여자를 쉽게 만날 수 있고 작업 성공률이 높은 장소로 극장, 경마장, 검투장 등을 소개하고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선물과 편지를 자주 하고 여자의 최측근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또 힘들게 얻은 사랑을 잃지 않으려면 부드럽게 행동하고 노예처럼 복종하되 요즘 말하는 밀당, 즉 속도조절을 잘 하라고 일러주고 있다.

만약 뉴턴이 『사랑의 기술』을 다른 과학 서적의 백분지 일이라도 몰두해 읽었더라면 캐서린의 마음이 소꿉친구에게서 변호사에게로 옮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뉴턴은 그녀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캐서린 스토러마저 없었다면 뉴턴의 생애에서 여자란 오직 어머니 한 나와 말년을 의지한 조카 캐서린 바턴 외에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으니 말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인지 뉴턴은 평생 어느 여자와도 연애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고 독신으로 지내 때로 동성애자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특히 네덜란드 수학자인 파티오와의 우정에 금이 가 결별했을 때는 그 충격으로 공황장애에 빠져 존 로크에게 “여자문제로 나를 모함하려한다” “당신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되는 편지를 보내 오해를 깊게 하기도 했다.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한 장면

이 모든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뉴턴의 생애에서 가장 난해한 것은 그가 일생을 통해 연금술에 심취했다는 점이다. 1936년 런던의 한 경매에서 경제학자 케인즈는 뉴턴의 원고 대부분을 낙찰 받았는데 그 원고들은 수학이나 물리학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연금술에 관한 것이었다.

연금술의 최종목표는 금이 아니라 현자의 돌(lapis philosophorum)을 찾는 것이다. 현자의 돌이란 철학자의 돌, 마법사의 돌로 불리는데 이는 영생의 불사약, 즉 생명의 물인 엘릭시스를 뜻한다. 수세기 동안 뉴턴을 비롯해 술한 연금술사들이 현자의 돌을 찾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등장하는 마법사 니콜라스 플라멜은 실존했던 인물로 1382년 마법사의 돌을 이용해 수은을 금으로 변화시켜 중세를 주름잡던 연금술사다. 마법사의 돌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지닌 절대반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절대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인 융에 의하면 현자의 돌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 즉, 인간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의 탈출구가 바로 현자의 돌이라는 것이다.

그토록 뛰어난 과학자임에도 평생을 통해 연금술을 추구한 뉴턴이 집요하게 찾아 헤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혹시라도 그는 자신을 이 황량한 세상에서 구원해줄 절대적 존재를 찾아 그토록 오랜 세월 마법사의 돌을 추구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고도 또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아 그 먼 여정을 떠난 것은 아니었는지...

그의 고독한 영혼에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노래한 「썸바디 투 러브」를 들려주고 싶다.

“누가 내게 사랑할 사람을 찾아줄 수는 없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며 나는 조금씩 죽어갑니다. 두 발로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요. 거울을 바라보며 나는 울음을 터뜨립니다.나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님, 누군가, 오 누군가를, 내게 사랑할 누군가를 찾아줄 수는 없나요.”